



# 제주형 건강주치의 ‘10대 서비스’ 본격 추진

작년 말 기준 건강주치의 19명… 도민 3993명 등록  
건강평가부터 요양·돌봄까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상급병원·응급실 과밀 줄여 지역 중심 의료체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도민 대상 10대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민이 건강주치의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교육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강화 모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의료기관 16개소, 건강주치의 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도민 수는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2012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제주도는 올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연계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건강주치의의 단독 관리가 어려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와 협업체를 다학제팀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는 사업 총괄 조정, 참여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기술지원, 건강지표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지원센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4명 체제의 다학제팀에 의사와 영양사를 추가해 9명 규모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주치의 역량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강화, 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등 3대 중점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운 안전건강실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일차의료 강화를 제도화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도민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과 응급실 과밀화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 중심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대상 질문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제자리걸음  
돌봄교실·방과후학교 더 확대해야”

제주도교육청의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제주시의회 임시회 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이운 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점검하며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이 지난해와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일부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짚으며 “오후 돌봄교실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3실이 늘어나는 등 소폭 확대됐지만 저녁 돌봄과 연계형 돌봄은 각각 2실과 4실이 줄어들었다”면서 “도내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연계형 돌봄이 15개교에 불과한 것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용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듣기보다는 지자체와 협력해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학교 공간만 고집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돌봄 수요를 더 흡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 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인근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역량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계획에 그치지 말고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은희 부교육감은 “돌봄교실은 최근 2년 사이 대폭 확대됐으며, 수요 조사를 반영해 미세 조정한 결과”라며 “수요가 있다면 연계형 돌봄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단위 돌봄뿐 아니라 거점형 돌봄, 주말 유아 돌봄 등 지역과 함께하는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2025년 조사 결과 제주지역 초등학교 사교육비 참여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돌봄과 방과후 확대를 통해 경감 효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최근 3년 도민안전보험  
1673명 보험금 24억 수령

최근 3년간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제주도민 1673명이 보험금 2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상자에 최근 3년간 지급한 보험금은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2025년 4억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고, 선원을 포함한 의사 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이상민기자



한림 농경지 양배추 수확 분주 11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배추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사회복지시설 RE100+플랫폼 사업’ 첫 시행

사회복지시설의 난방과 급탕 기반을 전기로 전환하는 ‘제주형 사회복지시설 RE100+ 플랫폼 시범사업’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시 희망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전기로 열을 생산하는 히트펌프 설비를 구축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 또한 이를 관리할 플랫폼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산업과가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수행한다.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대상시설 협조와 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으로 화석연료 기반 난방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및 후속 절차를 병행해 제주 여건에 맞는 확산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위성곤 국회의원 ‘도민과 함께’ 경청투어 시동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공식 출마 기자회견과 경청투어, 출판기념회를 연이어 진행하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9일 탐라문화광장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민생 현장에 서부터 새로운 제주의 길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출마 선언 이후엔 ‘도민과 함께’ 1차 경청투어를 진행한다. 위 의원은 우도면에서 한경면까지 제주시 전역을 돌며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3월 2일에는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미래구상’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국회=부미현기자

▶바로잡습니다=2월 10일자 3면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기사의 소재목 중 ‘민주당, 전 연령

층·전 지역서 과반 기록’을 ‘민주당, 전 연령층·전 지역서 우위’로 바로잡습니다.

## 연주현씨제주도친족회 신년하례회 개최안내

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친족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친족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여 종훈 “송조애족”의 이념을 되새기고 친족님 가정에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26년 2월 22일(일) 11시
- 장 소: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관  
제주시 애조로 892-16(노형동1804번지)
- 신년특강: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가"
- 강 사: 현 덕 규 (번호사)

**2026년도 친족회 장학금 신청서는 신년하례회장에서 배포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도친족회장 영화 010-3699-4201  
상임부회장 정운 010-2699-0156  
총무이사 상돈 010-3698-8764  
재무이사 석중 010-2699-0567

**연주현씨제주도친족회**  
회장 현 영화

## 삼육두유

###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m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 그랜드보청기

### ‘2026년 병모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사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경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제주서비스터미널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